통도사 개산대재, 1380년 법맥 등불 밝히다

10월 29일, 대웅전 앞 특설무대서
문재인 전 대통령·불자·시민 운집
자장 율사 진영 모신 영고재 봉행
불·법·승 이운 행렬 도량 물들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영축총림 통도사는 10월 29일 대웅전 앞마당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개산 1380주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삼보이운 및 괘불헌공 모습.

자장율사의 창사정신을 기리는 법석이 시민축제로 이어졌다. 통도사는 개산 1380주년을 맞아 전통의례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영축문화축제를 통해 불법의 향기와 시민의 발걸음이 함께하는 열린 도량으로 거듭났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10월 29일 대웅전 앞마당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개산 1380주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재 법요식을 봉행했다.

한 달여 동안 이어진 영축문화축제 기간 동안 통도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불자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미디어아트 전시를 비롯해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연이어 열리며 도량은 축제의 장으로 활기를 띠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년 불자들의 참여가 늘어나 전통의례와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열린 축제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했다.

통도사는 이번 대재를 통해 '불교문화의 생활화'와 '시민과 함께하는 도량'을 실천하며, 신앙과 문화가 함께 숨 쉬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법요식에 앞서 통도사 창건조 자장율사의 은덕을 기리는 영고재(迎告齋)가 개산조당에서 봉행됐다.

영고재는 자장율사의 진영을 모신 개산조당에서 그 공덕을 예경하는 의식으로, 통도사의 법맥과 수행정신을 상징한다. 이날 영고재는 향과 꽃, 차 공양이 올려지는 가운데 자장율사의 창사정신과 불법 전승의 의미를 되새기며 도량 전체를 청정한 기운으로 물들였다.

영고재에 이어 삼보이운(三寶移運) 의식이 장엄하게 펼쳐졌다. 총림문에서 대웅전 괘불대까지 이어진 이운 행렬은 불·법·승 삼보의 상징물을 모시고 이동하는 의식으로, 사부대중이 일심으로 동참해 도량의 기운을 하나로 모았다. 이날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법요식에는 삼보이운을 통해 모셔온 괘불이 장엄히 봉안되어 불보살의 위의(威儀)를 더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우담바라합창단의 삼귀의례로 법요식이 시작됐다.

현덕 스님은 봉행사에서 "자장율사께서는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란가사, 대장경을 봉안하고 통도사를 창건하셨다. 메마른 신라의 변방은 성지를 이루었고,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조의 혜명을 밝히며 불지종가의 위상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통도사는 창건 이래 단 하루도 향화를 꺼뜨리지 않았으며, 역대 조사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이 오늘의 통도사를 이루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중생의 공부처이자 정진처로서 불국정토의 불사를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도사 개산 1380주년을 맞이하여 불보사찰 통도사의 역사와 전통을 돌아보고 부처님과 자장율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다"면서 "우리 각자의 작은 나눔과 자비의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통도사는 이날 재적승 가운데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는 스님 48명에게 총 3910만원의 영축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열린 제4회 전국 초·중·고 사생실기대회 시상식에서는 박서주(부산예술고)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부산불교聯, '2025 팔관회'로 천년 법맥 잇다

10월 25~27일, 범어사서 '2025 팔관회' 봉행

호국법회로 의상대사 1400년 기념
위령재 · 팔재계로 청정 회향의 길


부산불교연합회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범어사에서 '2025 팔관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회장 정오 스님이 관정을 내리는 모습.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 범어사 주지)는 10월 25~27일 범어사에서 '2025 팔관회'를 봉행했다.

팔관회는 연등회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 행사로, 올해는 '팔재계의 실천과 호국정신의 계승'을 주제로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였다.

10월 25일 첫 행사로 범어사 문화광장 특설무대에서 선재동자 팔관재계수계법회가 봉행됐다. 선재동자문화전승단 어린이 100여 명이 법석에 앉아 삼귀의례와 함께 팔재계를 외웠다. 법회 후에는 영유아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마정수기 법회가 열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부처님께 귀의하며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다음날에는 '2025 팔관회 호국기원법회'가 봉행됐다.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고, 팔관회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법석으로 진행됐다. 올해 백희가무는 의상 대사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해 대사의 업적과 호국정신을 주제로 한 창작공연으로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정오 스님은 "국가의 안락은 개인의 청정한 계향(戒香)에서 비롯된다"며 "팔관회를 통해 불교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세계 속에 그 가치를 널리 전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7일에는 호국영령위령재가 봉행됐다. 위령재에는 부산보훈청, 해군작전사령부, 53사단,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부산경찰청, 남해해양경찰청 등 군·경·보훈 관계자와 보훈단체 대표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범어사 다도회가 육법공양을 올리고,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가 추모가를 불러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이날 부산보훈단체협의회에 자비의 쌀 20kg 108포(2160kg)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오후에는 팔관회의 대미를 장식한 팔관재계수계법회가 봉행됐다. 고려복식을 갖춘 수계자 100여 명이 3화상 7증사의 집전 아래 팔재계를 받으며 "살생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탐욕을 버리고 자비를 베풀겠다"고 서원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팔관회의 마지막 여운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11월 11일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에 동참한다. 이날 부산지역 사찰들은 오전 11시 정각,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하고 범종을 11회 타종해 참전용사와 순국선열의 왕생극락을 발원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미소원, JTS에 해외 지원금 2700만원

10월 26일, 정토회 두북 수련원서
'해외 결핵 의료 · 우물파기' 지원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은 10월 26일 경남 양산의 정토회 두북 수련원을 방문해 법륜 스님에게 '한국JTS 해외 결핵 환우 의료비 지원 및 우물파기 후원' 성금 27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인도와 필리핀 등 제3세계 국가의 결핵 환우와 식수난 지역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미소원은 매년 불교계 자비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국내외 복지 사각지대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장유정 이사장은 미소원이 법인으로 창립되기 전 2002년부터 해외 결핵 환우를 돕는 '한 명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다. 2010년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온 이후부터는 식수난 해소를 위한 우물 파기 사업을 본격화했다.

미소원은 자비나눔 실천 의지가 모여 2011년 법인으로 정식 출범했다. 이후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저금통, 경조사 기부금, 기도 동참금 등을 모아 매년 한국 JTS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2021년에는 4185만원, 2022년에는 1305만원을 전달하는 등 20여 년간 해외 결핵환우 의료비 지원과 식수 시설 확충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며 불교의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법륜 스님은 JTS의 교육사업 확대와 관련해 "과거에는 1년에 두세 개 학교를 짓는 데 그쳤지만, 최근에는 한 해 10여 개 이상을 세우고 있다"며 "이런 성장은 모두 꾸준히 후원해 준 분들의 정성과 신뢰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진제 스님 "APEC 성공 회향 기원"

10월 25일, 부산 해운정사 앞마당
경주 APEC 성공 기원 법회 봉행



조계종 제13·14대 종정을 역임한 진제 법원 대종사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인류 평화를 발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APEC을 '화쟁과 자각의 장'으로 승화시키고 불교의 수행적 지혜로 세계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의미를 담았다.

부산 해운정사(주지 성담 스님)는 10월 25일 해운정사 앞마당에서 '2025 경주 APEC 개최 성공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진제 스님은 법어에서 "경주 APEC이 성공적으로 봉행돼 국태민안과 남북통일이 성큼 다가오길 기원한다"며 "진정한 평화는 제도나 협약이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모든 반연을 내려놓고 화두를 뚜렷이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참의심이 돈발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임제 선사의 '탁발화'를 인용하며 "시비와 분별을 놓는 수행이 인류 평화의 근본임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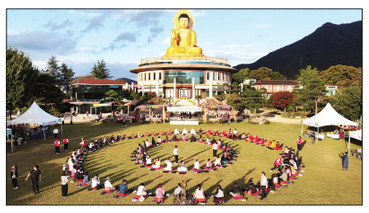
불산 스님은 "APEC이 다루는 경제와 외교의 주제 또한 결국 인간의 행복과 조화로 귀결되어야 한다"며 "참선의 지혜가 그런 세계적 논의의 방향을 밝혀줄 수 있다. 이번 대법회를 계기로 한국 선불교의 정신과 화쟁의 가르침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회 회향 후 해운정사 공양간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가 열렸다. 해운정사 신도들이 직접 음식을 마련해 약 2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공양을 올리며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홍법사, 비폭력 식사로 생명존중

10월 25일, 개산 22년 '선차대회'
'비폭력 식사'로 생명 존중 실천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는 10월 25일 경내 잔디마당에서 개산 22주년을 기념한 '사찰음식 홍보행사 및 허공마지 선차대회'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사찰음식을 통해 불교의 비폭력 정신과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전하고, 발우공양 명상으로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허공마지 찻자리로 문을 열었다. 잔디마당 곳곳에 마련된 가을 찻자리가 시민들을 맞이하며 차향 가득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한편에서는 사찰음식 홍보 전시도 선보였다. 이어 발우공양 명상이 열려 참가자들이 둥글게 앉아 발우를 펴고 공양 의식을 진행했다.

심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공양 명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의 시간"이라며 "한국의 전통 공양법에 명상을 더해 먹는 행위 자체가 수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음식을 준비한 대안 스님이 전하는 사찰음식의 의미를 통해 감사와 지족의 마음을 함께 배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는 평안등 점등식과 색소폰 공연으로 마무리돼 차와 음악, 음식이 어우러진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종교 넘어선 평화 선율, '2025 평화음악제'

10월 24일, 범어사 선문화관서
불교·천주교·기독교 화합 무대



종교의 경계를 넘어 평화와 인류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음악제가 열렸다.

사단법인 국제종교연합(이사장 정여 스님)은 10월 24일 범어사 선문화관 대강당에서 '2025 국제평화음악제'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제는 UN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하모니로 평화를, 음악으로 인류애를'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공연은 '그리운 금강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막을 올렸다. 천주교 무대에서는 '무정한 마음', 'O mio babbino caro', '축배의 노래'가 울려퍼졌고, 기독교 무대에서는 '행복한 산책', '사랑이 필요한 거죠', '오! 해피데이' 등이 이어지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불교 무대에서는 여여한 중창단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금정총림 범어사', '즐거운 가요 메들리'를 선보였다. 특히 불교 합창단이 성가곡을 불러 종교 간 화합의 상징적 장면을 연출했다. 마지막에는 전 참가자가 '사랑으로'를 합창하며 인류의 평화를 기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혜원정사, 어르신 공경과 나눔 실천의 장

10월 25일, 복지법인 혜원 주관
장학금 · 감사패 · 장수상 시상 등



사회복지법인 혜원(대표이사 원허 스님)은 10월 25일 부산 혜원정사에서 '2025 혜원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행사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세대 간 나눔과 공경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산장학회, 혜원문화재단, 혜원정사 세 기관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고산장학회 장학금은 동국대학교와 부산정보고 등 13명의 학생에게 총 1200만원이 수여됐다. 혜원문화재단은 지역 학생 40명에게 2300만원의 장학금을, 혜원정사는 7명의 학생에게 3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탰다.

이어 원허 스님이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한 김나윤 안동한우갈비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원허 스님은 "꾸준한 나눔 실천으로 어르신 복지 향상에 힘써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거제3동의 신광휴 어르신과 연산2동의 손정애 어르신이 장수상을, 연산동의 김도자·임순축 부부와 연산8동의 강성재·이임애 부부가 화목상을 수상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동래구불교聯, 임진의총 순절용사 추모

10월 24일, 동래임진의총서
자관 스님 "평화 · 화합 계기"



동래구불교연합회(회장 자관 스님)는 10월 24일 부산 금강공원 내 동래임진의총에서 '임진왜란 433주기 임진의총 순절용사 추모 위령재'를 봉행했다.

자관 스님은 "이 땅의 평화와 국민의 안녕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오늘 3500여 영가를 대신해 지극한 정성으로 위령재를 올리는 만큼 우리 모두가 평화와 화합의 마음을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현 스님은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동래읍성을 지키다 장렬히 전사한 충혼열사와 이름 없이 산화한 모든 영혼이 시방정토 극락세계에서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동래임진의총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침략을 막고 동래성을 사수하다 순절한 선열들의 유해를 모신 곳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